

### 속초해경 경찰관 직무역량평가 실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관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했다.

속초해양경찰서(총경 김홍희)는 지난 2일 오전 9시 2층 회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관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했다.

직무역량평가란 개인별로 희망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지식 등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직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양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평가 분야는 경비작전, 수사(형사), 정보, 수상레저관리 등 52개 분야이며, 해당 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향후 정기 인사발령 시 보직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취득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해로부터 5년간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직무역량평가를 기초로 한 보다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통해 개인의 전문지식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 장학금 기탁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회장 홍봉선)는 지난달 31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제13회 고성명태축제 기간 동안 상가운영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고성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나머지 수익금은 이웃돕기 사랑의 연탄배달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 동절기 선박사고 발생 높아

## 속초해경, 11월~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 설정

### 무리한 조업 말고, 수시로 장비 점검 해야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동절기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돌풍, 폭설 등 급격한 해상기상 불량으로 인해 선박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설악권에서는 총 44척 323명의 해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동절기인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총 13척 33명의 해난사고가 발생해 연중 사고발생율의 29.5%를 차지했다.

또 지난 3년간 해난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14척으로(34.1%)로 가장 많았고, 운항부주의가 10척(24.3%), 정비불량 9척(21.9%) 순으로 나타나 기상악화의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안전점검 예방활동을 강화할 경우 해난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선박출입항시 항해장비, 통신장비, 엔진, 조난장비에 대한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겨울 난방용 화기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또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를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장소 등의 긴급 출동 대응태세확립과 함께 기상정보 사전 전파, 사고다발지역 특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를 대비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유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고 각종 장비 점검과 함께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시 국제조난주파수(SSB 2183.4khz 및 VHF ch 16번) 및 해양긴급번호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 이호일 소방경 간성119안전센터 팀장으로

### 속초소방서 인사발령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지난 1일자로 이호일 지방소방경을 승진과 함께 간성119안전센터 팀장으로 배치하는 등 소방관 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발령 현황이다. ▲이호일 지방소방경(승진) 간성119안전센터 ▲이인기 지방소방위 소방행정과 ▲전상표 지방소방교 동광119안전센터 ▲최상원 지방소방위 예방안전과.

최광호 기자



김기성 속초소방서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 서장실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자 3명과 승진자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점포매매

# 김밥천국 인수하실 분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김밥천국 고성점 ☎033)681-9999

## 김장철 소금 불법유통 특별단속

### 속초해경, 내달 19일까지 ... 국내산 둔갑 행위 등

속초해양경찰서(총경 김홍희)는 김장철을 맞아 국내 생산지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국산 소금·절임배추·젓갈류 등의 국내산 둔갑 유통행위, 포대같이 수법(국산 포장재에 외국산 소금포장)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행

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비위생적인 젓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파프리카 색소를 고춧가루와 섞어 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유통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해양긴급 신고전화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광연 기자